IBK기업은행 금융그룹 IBK투자증권

ETF Spot Comment

국내외 ETF 비대칭 규제 해소로 전술적 투자 수단 확보

자산배분/ETF

김인식

02 6915 5472
Kds4539@ibks.com

규제 완화로 ETF 시장 추가 확장 기대

국내 ETF 시장은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상품 구조 측면에서 한 단계 확장되었다. 금융당국은 국내-해외상장 ETF 간 비대칭 규제 해소를 목적으로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ETF 도입을 허용한 가운데 시행령은 오는 4월 28일 공포 및 시행된다. 이에 증권신고서 제출과 상장심사 이후 이르면 5월 22일부터 관련 상품 상장이 가능할 전망이다. 초기 대상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2종목으로 제한되지만 이번 조치의 의미는 단순히 신규 상품 수 확대에 그치지 않는다. 기존 국내 ETF 시장이 분산투자 및 패시브 중심의 구조였다면, 이제는 단일종목에 대한 전술형, 커버드콜 등 옵션 결합형과 같이 세분화된 전략 상품으로 외연을 넓힐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개별주식·ETF 기초 옵션시장 확장도 병행되어 국내 ETF 산업이 단순 추종형 시장에서 전략형 시장으로 진입하는 출발점으로 평가할 수 있다.

선제적으로 성장 과정을 경험한 미국 단일종목 ETF 유형

미국 시장 사례는 단일종목 ETF가 대규모 코어 자금보다 테마 집중이나 단기 매매 수요를 흡수하며 성장해왔음을 보여준다. 미국 ETF 시장은 전체 5,050개 상장, AUM 14.8조 달러 규모이나 단일종목 ETF는 462개 상장, AUM 364.7억 달러로 상품 수 비중은 9.1%에 달하는 반면 자산 비중은 0.25%에 그친다. 특히, 자금은 소수 고변동 종목에 집중되었다. 테슬라(TSLA) 66.5억 달러, 엔비디아(NVDA) 61.9억 달러, 스트래티지(MSTR) 21.9억 달러, 팔란티어(PLTR) 16.0억 달러 순으로 상위 4개 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한 상품이 전체 단일종목 ETF AUM의 45.6%를 차지한다. 유형별로는 레버리지 비중이 압도적이며, 연계상품 개수로는 TSLA가 17개, NVDA와 MSTR은 각각 14개 상품이 상장돼 있어 특정 종목을 둘러싼 단기 방향성 베팅 수요가 시장 성장을 견인했음을 시사한다.

단기 수급 효과 이외에도 ETF 시장 성장 과정으로 해석

정책 변경 효과는 단기 자금 유입 이벤트 만으로 해석하기보다 국내 ETF 시장의 성장 경로 변화로 볼 필요가 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자체가 시장 전체 AUM을 단기간 크게 확대시킬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글로벌 투자자 수요가 기존 지수형 상품에서 전략형 상품으로 이동하는 흐름 속에서 국내 ETF 시장이 해당 수요를 직접 수용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해외 성장주 레버리지 투자로 향하던 일부 투자 수요의 환류 가능성과 운용사들의 구조화 상품 개발 경쟁, 파생상품 거래 활성화까지 고려하면 파급효과는 확대된다.

국내 역시 초기에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중심으로 반도체 업황 기대, 실적 모멘텀에 연계된 거래 수요가 우선적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미국처럼 상품군이 빠르게 다변화되기 위해서는 허용 종목 확대, 개별주식 옵션시장 유동성 개선 등이 후속적으로 이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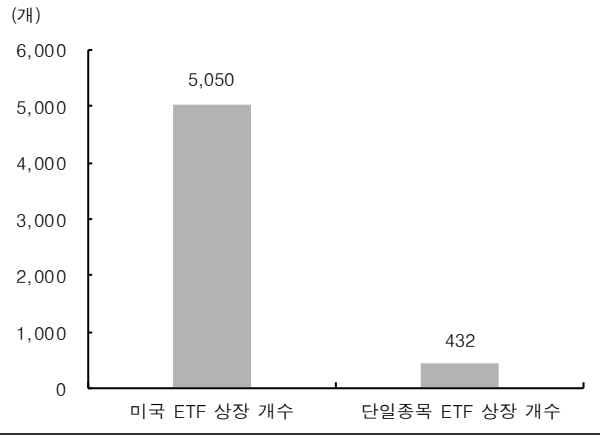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리서치센터에서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과거의 자료를 기초로 한 투자참고 자료로서 향후 주가 움직임은 과거의 패턴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고객께서는 자신의 판단과 책임 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해 최종 결정하시기 바라며,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표 1. 국내-해외상장 ETF 간 비대칭 규제 해소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제도 개편 목적	국내 ETF에 막혀 있던 단일종목 ETF 규제를 완화해 해외상장 ETF와의 비대칭 규제 해소 추진. 국내 투자수요의 해외 유출 완화 목적
시행 일정	시행령 4월 28일 공포·시행 예정. 증권신고서·상장심사 후 이르면 5월 22일부터 상장 가능
허용 상품	국내 우량주 기반 단일종목 ±2배 레버리지/인버스 ETF, 단일종목 커버드콜 ETF 허용
단일종목 기초자산 후보	특정 기준* 충족 종목만 허용. '26년 1분기 기준 삼성전자 · SK하이닉스 2종목 해당 **시가총액 10% 이상 & 거래량 5% 이상 & 적격투자등급 & 파생거래량 1% 이상*
파생상품 인프라 확대	개별주식·ETF 위클리 옵션 및 월 만기 옵션 확대 추진. 커버드콜 ETF 출시 기반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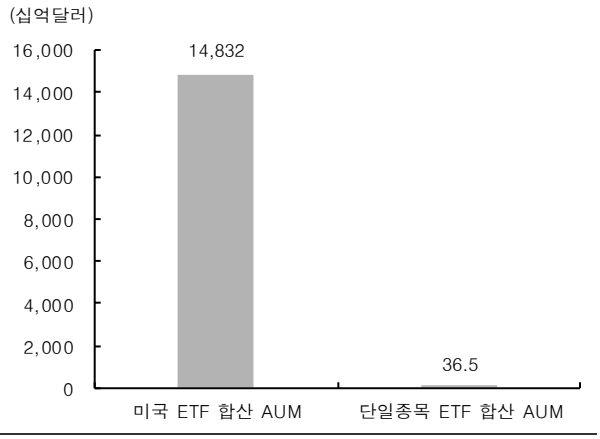
자료: 금융위원회, IBK투자증권

그림 1. 미국 전체 ETF 및 단일종목 ETF 상장 개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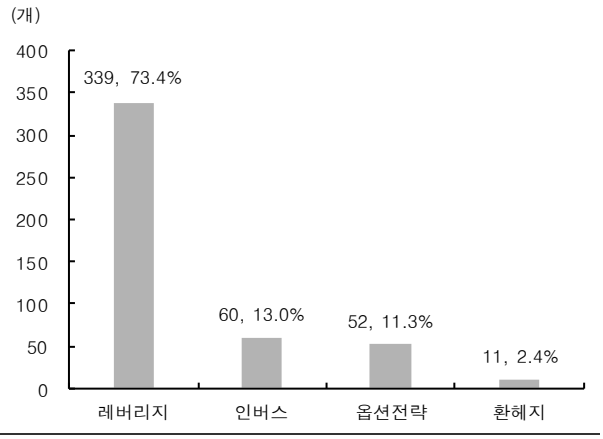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IBK투자증권

그림 2. 미국 전체 ETF 및 단일종목 ETF AUM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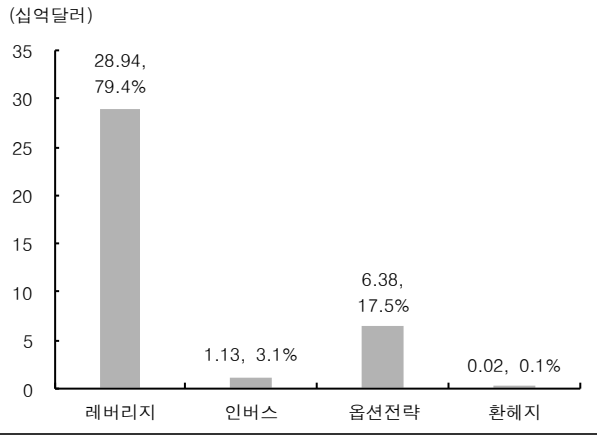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IBK투자증권

그림 3. 미국 단일종목 ETF 유형별 상장 개수



자료: Bloomberg, IBK투자증권

그림 4. 미국 단일종목 ETF 유형별 AUM



자료: Bloomberg, IBK투자증권

표 2. 미국 단일종목 ETF 기초자산별 AUM 및 상장 수 비교 Table

티커	기업명	AUM(십억달러)				상장수(개)			
		전체	레버리지	인버스	옵션전략	전체	레버리지	인버스	옵션전략
TSLA	테슬라	6.65	5.46	0.31	0.88	17	9	4	4
NVDA	엔비디아	6.19	4.64	0.15	1.39	14	8	4	2
MSTR	스트래티지	2.19	0.81	0.20	1.18	14	6	4	4
PLTR	팔란티어	1.60	1.16	0.06	0.38	11	8	2	1
SNDK	샌디스크	1.39	1.39	–	–	2	2	0	0
MU	마이크론	1.37	1.34	0.03	–	4	3	1	0
GOOGL	알파벳(구글)	1.35	1.10	0.01	0.24	7	4	1	2
MSFT	마이크로소프트	1.22	1.07	0.04	0.11	7	4	1	2
COIN	코인베이스	1.22	0.71	0.05	0.46	11	7	2	2
AMD	AMD	0.99	0.80	0.02	0.17	10	6	3	1
–	전체	36.47	28.94	1.13	6.38	462*	339	60	52

자료: Bloomberg, IBK투자증권
주: * 합산 개수 차이는 단일종목(환헤지) 유형 11개 포함

표 3. KOSPI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 국내 우량주식(단일종목 ETF 대상) 요건 점검

코드	기업명	시가총액 (10% 이상)		거래대금		선물거래대금		옵션거래대금	
		금액(십억원)	비중	금액(십억원)	비중	금액(십억원)	비중	금액(십억원)	비중
A005930	삼성전자	1,280,335	25.3%	5,379	19.0%	5,079	29.0%	2.4	7.4%
A000660	SK하이닉스	872,348	17.2%	4,108	14.5%	5,877	33.6%	4.3	13.1%
A373220	LG에너지솔루션	111,852	2.2%	168	0.6%	187	1.1%	0.4	1.1%
A005380	현대차	111,798	2.2%	1,123	4.0%	715	4.1%	2.0	6.0%
A402340	SK스퀘어	94,746	1.9%	336	1.2%	156	0.9%	–	–
A034020	두산에너빌리티	74,113	1.5%	625	2.2%	323	1.8%	0.6	1.7%
A207940	삼성바이오로직스	73,510	1.5%	93	0.3%	24	0.1%	1.0	3.0%
A012450	한화에어로스페이스	71,725	1.4%	383	1.3%	162	0.9%	–	–
A000270	기아	62,466	1.2%	269	1.0%	163	0.9%	0.3	1.0%
A105560	HD현대중공업	60,458	1.2%	170	0.6%	99	0.6%	0.2	0.7%
–	KOSPI	5,062,319	100%	28,336	100%	17,492	100%	32.7	100%

자료: 에프엔가이드 Quantiwise, IBK투자증권
주1: 2026년 4월 21일 종가 기준. 거래대금 및 파생거래대금은 연초 이후 일평균 산출. 상대 비중은 KOSPI 대비
주2: 단일종목 기초자산 요건 – 시가총액 10% 이상 & 거래량 5% 이상 & 적격투자등급 & 파생거래량 1% 이상